

21세기 한국의 봄은 오는가?



李祥義

현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전 과학기술처 장관)

계

절은 봄을 향해 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다. 계절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모든 사회적 환경면에서 아직 따듯한 봄은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동안 따스한 날에 익숙해 있던 우리 국민에게 IMF 경제위기로 불어닥친 한파는 아직까지 우리를 춥게만 하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가 따스한 봄으로 간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이에 비해 추운 한파가 몰아쳤지만 미국 경제는 봄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의 모습이다. 오죽하면 미국 증권시장에서 '뜨겁다'(hot)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렇게 우리와 미국의 경제적 기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 1980년대 레스터 써로우 교수는 그의 저서 'Head to Head'에서 미국이 아닌 유럽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를 것을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재 유럽은 미국과 경제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 투자와 정보화의 차이에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투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쇠락 예측 속에서도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정보화국가로서 미국 경제가 계속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는 정

21세기는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다시 이룩할 것인가,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는 중요한 시기로서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기술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더 많은 격차가 있고, 이것이 더욱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제약·의료기술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지난해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킨 화이자의 비아그라 개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신약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화이자사는 비아그라 한 제품만으로도 1998년 전세계에서 7억 8800만 달러나 판매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업계 매출액의 두 배에 해당한다. 위궤양치료제, 항암제 등 전세계에서 늘 팔리는 제품을 포함하면 제약업계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 이 대규모 시장을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암치료제라는 엔지오스타틴 등을 개발한 포크먼 박사의 연구결과 등 세계적 화제가 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는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이상 언제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막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노동력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투자를 하지 못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잃고 IMF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에도 IMF 위기를

빌미로 연구개발분야가 축소되고 있다.

21세기는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다시 이룩할 것인가,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는 중요한 시기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의 성원과 격려, 정책적 지원이다. 작년 이후 생명공학분야에서 복제소 '영롱이' 탄생 등 과학기술분야의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일회성으로 취급한 것은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은 생명을 다루는 연구분야로서 안전 및 윤리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살 길은 연구개발뿐이다. 생명공학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위성개발, 반도체 등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연구개발비 증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국가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을 정책입안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인정과 격려, 국민들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국토에서 빈약한 자원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력 발전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